

體力科學研究 第十六卷 第一號

Research On Physical Fitness

Vol. XVI No. 1 (1994)

종교개혁에서 본 신체적 고찰

(Martin Luther를 중심으로)

정재환

A Study on the Physical Education from the Religious Reform of View

(Focused on the Martin Luther)

Study by Chung Jae Hwan

Abstract

Renaissance is the dawn of modern physical education

The scholars of Renaissance age made a profound study of the averred Greek and Rome as well as the contemporary world.

The metaphysical doctrine of substance in Greco Roman philosophy was challenged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ccording to this doctrine nothing is eternal except god, and all else has been created by god.

The human soul is no longer regarded as a past existence one's and it's immortality in that sense is denied each soul to be a fresh creation to believed

This movement was very little noticed by scholaes.

The only one of leading rank who much affected by it was Martin Luther, who applied the new methods of historical scholarship to the history of philosophy with momentous results.

We call even call him the modern founder of that physical education.

目 次

Abstract

I. 序 論	V. 마틴루터의 신체관
II. 마틴루터(Martin Luther)의 생애	1) 마틴루터의 체육사상
III.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	VI. 結 論
IV. 마틴루터의 교육관	참 고 문 헌

I. 序 論

體育이 오랜 暗黑時代를 벗어난 近代體育으로서 새싹을 트게 된 것은 르네상스(Renaissance, 14-16C)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Renaissance란 再生, 復活을 뜻하는 프랑스 말로서 14세기경부터 이탈리아에서 人文主義(Humanism)의 발달에 수반하여 일어난 文化全般에 걸친 복고적 혁신의 風潮를 말한다.(김오중, 1985)

르네상스 時代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知識 뿐만 아니라 古代 그리스와 로마를 研究함으로써 中世生活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는 人間에 對한 獨斷的 抑壓에 反抗이 증대하여 갔다.

그 결과, 神學이라는 좁은 領域으로부터 知的活動을 해방시키고, 개인 才能의 자유스러운 발달을 鼓舞시켰다.(조명열 외, 1983)

르네상스의 정신은 個人主義 自由主義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近代精神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自己主義의 각성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중세 말엽부터 自然과 人生을 자유롭게 탐구하려는 기운이 유럽 일대에 농후해짐에 따라 고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尊嚴性을 인식하게 되자 禁慾主義를 타파하고 古代體育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체를 발달시키려는 실용적 체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서 마틴루터(Martin Luther)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진실한 신앙과 신의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갖고자 가정 및 학교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체육과 음악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어 신체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김오중, 1985)

이에 本研究는 종교개혁을 통해 신체활동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마틴 루터의 생애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독일의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엔스필드 銅山을 경영하는 富裕한 精鍊業者가 되었다. 그는 마구데부르그, 아니제나하에서 中級教育을 받고 1501年 에루펠트(Erfurt)大學에서 法學을 배웠으며, 1505年 文學士의 과정을 끝내고同年 6月末 故鄉에서 에루펠트로 가는 도중 심한 雷雨를 만나 그 충격으로 7月에 아우구수티 누스會의 修道院에 들어가 엄격한 修道僧生活을 경험하였다.

그는 1508年 유텐부르(Wittenberg)大學의 教壇에 서게 되었고, 1512年 神學博士가 되어 同大學의 神學教授가 됨과 同時に 유텐부르그成教會의 牧師가 되었다. 그는 原罪意識에 의한 고민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神의 恩寵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으로서만 그理想에 도달할 수 있다고 說破하였다. 따라서, 그는 聖衣를 입고 斷食, 巡禮 등의 修業行爲를 하는 것이 信仰이 아니고 個人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神을 존경하고 神의 말씀에 따르는 行爲가 信仰의 길이라고 說教하였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教會의 思考方式이나 祭儀的인 行爲를 가지고 信仰의 길이라고 말하는 說教들을 非難하였다.

루터는 教會의 善行 중 실천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教皇 레오 10世가 聖베드루教會 修築을 위한 賦罪符(Indulgentia: Indulgence)의 발행을 비판

하게 되었다. 그는 오직 信仰에 의해서만 救濟가 있을 따름이라고 確言했으므로 賦罪符에 관한 論爭을 提起할 목적을 1517年 10月 「95개조」를 비텐베르크 大學 教會 문위에 붙여 發表하여 賦罪符의 不當性을 指摘하였다. 「95개조」는 다음해 獨逸語로 번역 인쇄되어 독일 전역에 배포되었으며, 賦罪符의 買上에 큰 차질을 주었다. 그는 또한 가톨릭教會 안에서 그의 意見에 贊成者가 少數임을 알고, 동시에 유명한 神學者인 요한 에크(John Eck)와의 公開討論(1519)에서도 教會史 및 正統教理의 研究 부족으로 困境에 빠졌다.

그 후 1年間 隱退하였다가 1520年 3個의 팜프렛을 발간하여 그의 意見을 大膽하게 公表하여 가톨릭教會에서 決定的으로 分離해 나왔다. 로마 教皇廳은 그의 主張을 反論하는 문서를 公表하고 루터를 破門하였다.

世界歷史의 흐름을 자못 확실하게 변경한 사람은 드물거니와 루터는 이런 드문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

鑽夫가정 출신의 루터는 초자연적 은총의 신앙 외에 現在의 此岸생활에도 종교적 정신을 침투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① 전통적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이라고 했던 獨身生活을 반대하고 結婚의 신성함을 주장했다. ② 민족적 독립 국가가 하나님에 인정한 타당한 제도로 보아 이것을 존중하였다. ③ 그는 과학의 자유, 자기 확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原則上으로 인정했다.

또한 루터는 종교개혁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Wartburg城에서 聖書를 獨譯해 내었고 이때의 用語가 후세에 와서 독일 국민을 통일하는 표준어로 使用되도록 했던 공적도 결코 낮게 평가해서

는 안된다.

III.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

문예 부흥기 시대는 중세로부터 근세까지의 과도기였다.

제도주의는 개인주의로, 말제주의는 현세주의로 변하고 그리스도교의 神 중심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고 금욕주의는 유미주의(唯美主義)로 변하였으며 신체를 죄악시하는 사상도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이대출판부, 1986)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중세시대의 封建制度 및 權威主義를 타파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신교도)의 개혁에 의해 기독교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고 기독교 본래의 숭고한 정신으로 되돌아 갈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 운동은 르네상스 문명을 자극 조성하기도 했고(Melanchton, 최재희, 1988) 종교개혁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화적 변혁의 하나였다. 유럽은 교역과 상업의 실질적인 증가, 탐구와 발견의 놀라운 확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착실한 성장을 경험하였다.(강동일, 1991)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권위주의의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교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진실한 信仰과 神意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人文主義 입장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육을 재현하고자 청소년 교육에 힘을 기울였으며, 기독교의 성서는 종교적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성서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

어야 하며 소년소녀를 위하여 읽고, 쓰고 하는 능력과 아울러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투터학파의 각 교구에 설립하도록 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참다운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관계에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도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다.
(나현성, 1989)

IV. 마틴 루터의 교육관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으로 유럽 일대에서는 人文主義(Humanism), 道德主義(Moralism), 實學主義(Realism) 등의 순으로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여 文藝復興을 일으키고 중세 教議主義의 붕괴를 촉진시킨 비판정신을 싹틔워 하였다. 루터는 인문주의 입장에서 心身의 造化的 發達을 추구하는 아테네인의 이상을 재현하고 개성과 일상생활에 참여하는데 유효한 힘을 가진 自由人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신체를 억압하고 너무나 편협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절제한 중세의 교육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으며, 인문주의 교육이란 身體活動과 衛生, 身體의 精神, 知性 그리고 愛情과 意志를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自由教育인 것이다.(김오중, 1985)

인문주의자는 정신을 해방하여 기독교의 道德과 그리이스의 個人主義를 통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 행동으로까지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인문주의자가 차츰 생활보다는 언어문학에 더욱 치중됨으로써 인문주의의 美的, 社會的, 身體的 목적은 사라지고 말았다. 초기의 인문주

의는 이와같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고 말았지만 중세사상인 금욕주의적 사고를 타파하고 새로운 교육운동으로 전환하고 근대 세계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인문주의의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교회의 혁신은 교육에 있음을 인정하고 실제교육의 재조직을 제창하였다. 그 교육에 있어 新教가 舊教와 다른 입장도 來世主義의 종교교육 뿐만 아니라 現世에 있어서도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

그러므로 教育은 가정, 직업, 교회, 국가 등에 있어서義務를 다해야할 준비로서의 教育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나현성, 1989)

루터주의는 종교적인 인간성과 좋은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는 개인이 종교적 의무를 다할 것은 물론이고 市民的인義務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는 市民的 질서의 유지와 가정의 바른 관리를 위해서 완성되고 훌륭하게 훈련된 男女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였다.(김오중, 1985)

종교개혁은 國民主義의 정치운동과 결합해서 기독교를 全 유럽적 가톨릭에서 민족적 국가적 종교로 化하게 했다.

이점은 종교개혁의 가톨릭의 普遍主義를 個人主義화한 점과 함께 중요한 상황이다.(최재희, 1988)

또한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한 방법으로 教育問題를 중시하고 교육저서를 통하여 개혁의 취지를 論說하였다.

그는 「기독교적 신분의 개선에 대하여 독일의 기독교적 귀족에게 주는 글」에서 로마法王廳을 비난하고 기독교 개혁의 필요성을 설교하는 한편

대학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을 휴머니스트들의 손에서 빼앗아 다시 神學으로 돌리려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表明하고 있다.

그리고 普通의 학교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서도 上級學校 진학에 대하여서는 소수정예주의를 제정하였다.

또한 「독일 全都市의 市評議會員에게 주는 글」을 발표하여 일반대중의 학교 설립과 유지를 호소하였다. 즉 학교의 설립, 유지는 公共體인 市의義務라고 새로 제언을 하였다.

특히 일반대중을 위한 教育과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복선형 교육형태도 주장하였다.(조명열, 1984)

V. 마틴루터의 신체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존중하고 인간성의 해방과 발전을 역설한 인문주의자들은 신체의 보호발전을 중요시하고 기능이 뛰어난 자를 높이 평가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인문학자 Virtion da Feltre는 학교는 “즐거운 집”이라 이름짓고 위압적이 아닌 친절한 지도로써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중시하여 하루도 운동을 빼지 않았다. 운동종목은 유희 외에 구기, 승마는 물론 달리기, 높이뛰기, 씨름 등과 시합등도 때때로 행하여졌다. “체육의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고 전쟁에 이기여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단련하는데 있다. 또 한편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Martin Luther는 승원의 금욕주의에 반대하고 신체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남성적 신체운동이 경시당할 때는 淫樂이

황색한다고 하여 기사의 운동이나 유회를 친하였다."

학교에서는 운동을 학과에 넣지 않았으나 과외 시의 운동경기등을 장려하였다.(이대출판부,1986)

그는 놀이나 오락은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음식과 같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體操는 신체와 灵魂의 내면等兩面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체조는 신체의 強力性과 건강을 유지하며 音樂은 마음의 苦惱를 없애준다고 하였다.(김오중,1985)

중세기에 있어서 신체를 부정하고 신체운동을 죄악시 하였던 기독교에서 문예부흥의 종교개혁자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신체운동을 다소나마 인정받게 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또한 루터는 '사람은 명예롭고 유용한 형태의 운동을 할 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선현들을 존경스럽게도 안내하고 명령하였다.—따라서 나는 —음악과 펜싱, 레스링 등 기사 스포츠를 찬성하는 바이다. 그 중 전자는 근심과 우울을 마음에서 내몰아주고 후자는 사지를 충분히 발달시켜 준다.'고 하였다.(강동일,1991)

개인의 노동과 그리스도적 봉사에 정력을 다 할 수 있게 하며 종교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루터는 신체 건강의 증진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 교도들은 자기 신체를 돌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즉,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건강과 복리에 힘입어 노동에 종사하고 재산을 획득,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보다 강한 구성원은 약한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하여 …

그리스도의 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틴 루터의 신체관은 육체를 영혼보다 낮은 位置에 두고 신앙자로서 修業에 전달 수 있는 身體에 留意하여 오락이나 유회는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고, 체조는 체력유지의 수단으로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에 체육을 넣도록 하였다.(加藤稽夫譯,1967)

1) 마틴루터의 체육사상

마틴루터는 학교교육 가운데 체육을 넣어 이탈리아 인문주의와 독일 국민의 생활관을 결부시키려 하였으며 또한 그는 僧院學校의 교사들의 금욕주의 사상에 반대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騎士가 행한 유회나 연습을 대단히 가치가 많다. 그 이유는 검술, 레스링, 도약 등에 의해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나현성,1989)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리아스적 체육을 강조하면서 Platon과 같은 체조와 음악을 교재로 하는 이상적인 체육 교육의 필요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리아스적 체육을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뛰고 노는 것이 어린이의 본성임을 깨닫고 학교 프로그램에 스포츠를 포함하여 펜싱과 무용, 레스링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古代 그리스·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으로 도덕적으로 전진한 체육활동은 배척하지 않았다.(강동일,1991)

하지만 人間性的 해방을 부르짖으면서도 女性的 體育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IV. 결 론

이상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체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세의 권위적, 봉건적, 특히 금욕주의적 생활론, 신체활동을 등한시 하였으며 부정하였으나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부패와 자기의 지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信仰과 神意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갖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마틴 루터의 교육적 의견도 중세주의를 넘어선 견해로 교육에 관한 제도적인 개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의 필요성을 종교를 통한 체육활동을 고대 그리스의 신체관에 초점을 맞춘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개혁사상으로 인하여 근대 학교체육 교육이 행하여지는데 큰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골ロック(Locke), 루소(Rousseau), 바세도우(Basedow)의 체육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참 고 문 헌

1. 강동일(1991), 체육사, 보경문화사.
2. 김오중(1985), 세계체육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3. 나현성(1989), 세계체육사 개론, 교학연구사.
4. 노희덕 외(1983), 체육사, 형설출판사.
5. 송기득 譯(1987),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한국 신학연구소 출판부
6. 움직임과 건강(1986), 움직임과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7. 정삼현(1989), 체육사, 영남문화사.
8. 조명열(1984), 체육사상사 개론, 교학연구사.
9. 최문환(1980), 근세 사회사상사, 삼영사.
10. 최재희(1988), 서양 윤리사상사, 서울대 출판부.
11. 홍진균(1987), 체육사, 교학사.
12. 加藤禕夫 譯(1967), チュードルの世界史, 人-スポ-ルスザミン社.
13. Copleston Frederick(1966), A History of Philosophy Image Books.